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제 2차 성경 통독 150일 운동 이번 주 범위는 예레미야 34장부터 에스겔 20장까지입니다. 긴 초겨울 밤 말씀 통독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통가 공동체 주관입니다. 한 주일의 중심에서 예배를 통한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모이기에 열심을 냅시다.
4. 어제 밀알 장애우를 섬긴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밀알장애우들이 만든 쿠키를 한봉지에 \$2씩 판매합니다. 이 쿠키 판매를 통하여 장애우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밀알장애우들을 돌볼 자원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봉사시간: 월 1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소: 광명교회 옆).
6.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박성천 목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이태한 목사는 선교사 대회 참석을 마치고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유익한 일정을 보내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8. 김광영 집사 Hospice North Shore로 옮기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9.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나무십자가 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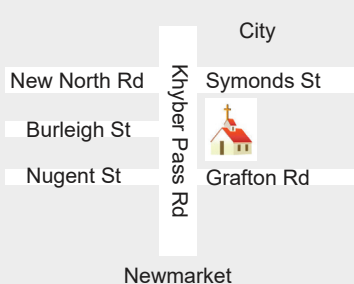
2018년 5월 27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요한일서 5:6-8
◎ 찬송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8장
◎ 신앙 고백	사도신경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대표기도	박제용 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15:6-11
찬양대 찬양	그 큰일을 행하신/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자유하게 하라 박성천 목사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도	박성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 교회 사역

6월 3일(주일): 저녁기도회
 6월 24일(주일): 성찬주일
 6월 27일(수요일): 선교회 주관예배
 (제2 여성교회)

6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박영선 사모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유라 자매
 6월 6일 수요: 정덕수 장로
 6월 6일 애찬: 차영철 집사
 6월 10일 주일: 김철재 집사
 6월 10일 청년부: 김규연 형제

6월 예배 봉사자

예배안내: 김은우/박병민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차안내: 김교섭/민광호
 주방봉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금주의 기도제목

1. 해가 더해질수록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이웃과 지역사회에 분명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2. 주의 종들과 향존 직분자들에게 성령충만과 강건함이 더해지도록.
3. 이민생활의 어려움, 타지의 적응 문제, 미래의 불안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김광영, 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한국을 방문 중이신 이태한목사님이 보내신 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자카르타 선교사 대회 일정을 막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남미를 제외한 스리랑카, 터어키, 케냐,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150여명이 함께 모여서 사역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회교권의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를 회교도들이 죽이려고 몰래 독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는데 그 음료수를 마신 선교사님이 멀쩡하자 수많은 회교도들이 놀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들으며 마가복음 16:18절에 기록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성취 되었음에 모든 선교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한 여성 선교사를 추방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모함으로 고발했으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어떤 한 분이 그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하여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모 저모로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한편 우리가 중보기도로 돕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도 참여하여 반갑게 만났습니다. 간 이식 후 회복 중인데 건강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공동체와 4여선교회에서 헌금한 정성을 드리며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터어키 정빌립 선교사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여러 성도들과 같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김광영집사님과 여러 편찮은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매일 찾아가 심방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카톡으로 김집사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심을 분명히 믿으며 기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겠습니다. 곧 뵈겠습니다.

기도제목

1. 남은 일정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2. 한국에서 준비할 것들이 빠짐없이 준비되도록.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통가공동체 주관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이광희장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12-24
 설교 하나님의 약속/
 이성철목사
 찬송 성령이 오셨네
 주기도 다같이

기도: 권우석 형제